2021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

사회탐구 영역(윤리와 사상)

제 4 교시 | 성명 | | 수험 번호 | | | | | 2 | | | | | 제 [ ] 선택 | 1

1.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사회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.
② 쾌락과 고행의 두 극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.
③ 나와 남이 분리된 존재임을 깨달아 자비를 베푼다.
④ 변하지 않는 사물의 실상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한다.
⑤ 남을 수단으로 삼아 모든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.

2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> 갑: 아이도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고, 성장해서는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.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은 인(仁)이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의(義)이다.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과 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.
> 을: 그릇은 목수의 작위[僞]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지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. 예법(禮法)은 성인(聖人)의 작위를 오래 익힘으로써 생겨나는 것이지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.

〈 보 기 〉

ㄱ. 갑: 잃어버린 본심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ㄴ. 갑: 사람은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[良知]을 지닌다.
ㄷ. 을: 사람은 누구나 본성을 보존한다면 성인이 될 수 있다.
ㄹ. 갑, 을: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.

① ㄱ, ㄴ ② ㄴ, ㄷ ③ ㄷ, ㄹ
④ ㄱ, ㄴ, ㄹ ⑤ ㄱ, ㄷ, ㄹ

3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> 갑: 인간이 가진 무지 중에서 가장 비난받을 무지는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.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신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꿀 때 참된 앎을 얻을 수 있다.
> 을: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. 자신의 경험이나 신념과는 전혀 무관하게 어떤 것이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

① 갑: 덕이 있는 사람도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다.
② 갑: 영혼의 성찰을 통해 참된 앎을 추구해야 한다.
③ 을: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.
④ 을: 경험이 아닌 이성으로 지식을 파악해야 한다.
⑤ 갑, 을: 정신적 가치보다 쾌락과 명성을 중시해야 한다.

4.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> 사람의 성(性)은 단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이다. 그 선을 좋아함으로써 측은(惻隱)과 사양(辭讓)의 마음이 있게 되며, 그 악을 싫어함으로써 수오(羞惡)와 시비(是非)의 마음이 있게 되며, 그 네 가지 마음이 있음으로써 인의예지(仁義禮智)의 덕을 이룰 수가 있다.

① 사덕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치[理]이다.
② 사단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.
③ 인간은 본래부터 선을 지향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.
④ 인간은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.
⑤ 사단은 마음에 사덕이 있음을 알게 하는 실마리[緖]이다.

5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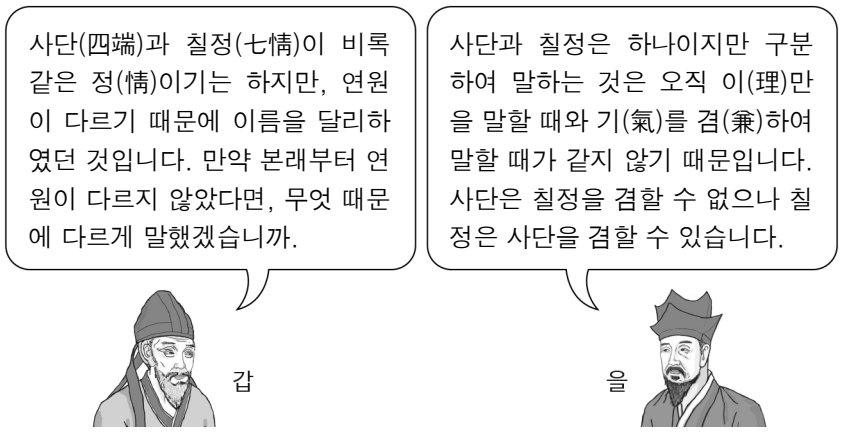
> 갑: 인간의 최고의 도덕적 완성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. 의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된 모든 행위는, 그것들이 비록 이런저런 의도에서는 유용할지라도 무시해야 한다.
> 을: 인간은 단순히 쾌락의 양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.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감이 있기 때문이다. 이 존엄감은 저급한 존재로 전락하기 싫어하는 감정이다.

〈 보 기 〉

ㄱ. 갑: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.
ㄴ. 갑: 도덕의 목적은 사회적 유용성을 산출하는 것이다.
ㄷ. 을: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.
ㄹ. 갑, 을: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.

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6. 그림은 한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가상 대화이다.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

① 갑: 사단과 칠정은 모두 악(惡)으로 드러난다.
② 갑: 사단은 기가 발(發)하고 이가 타는 것이다.
③ 을: 사단과 칠정의 발하는 연원은 서로 다르다.
④ 을: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측면만을 가리킨다.
⑤ 갑, 을: 사단과 칠정은 감정이 아닌 본성[性]이다.

7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> 신 또는 자연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존재한다.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파악될 수도 없다.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결정되어 있다.

〈 보 기 〉

ㄱ. 최고선에 도달하기 위해 인격신의 계율을 따라야 한다.
ㄴ.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.
ㄷ. 신은 자연 만물을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내재적 원인이다.
ㄹ. 인간은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.

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8. 근대 한국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> 갑: 서양의 학문에는 한울님의 가르침이 없으니 형체는 있되 자취가 없지만, 우리의 도는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아 자연스러운 가운데 조화를 이루게 된다.
> 을: 서양의 학문을 막고 서양의 물건을 뿌리 뽑아야 한다. 일상으로 접하는 입는 것, 먹는 것, 사용하는 것에 서양의 물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두 찾아내어 태워 버려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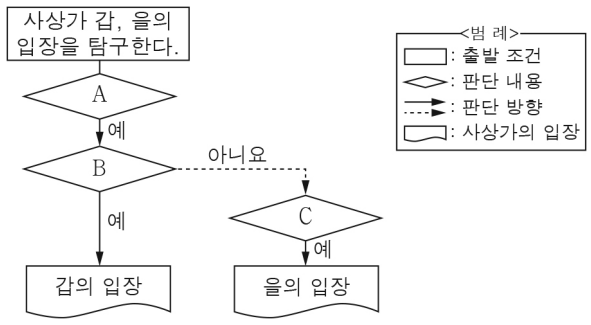
① 갑: 봉건적 질서를 수호하여 도덕적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.
② 갑: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평등하다.
③ 을: 서양의 종교를 수용하여 유교적 가치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.
④ 을: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을 조화시켜야 한다.
⑤ 갑, 을: 모든 차별이 사라진 이상 사회를 현세에서 실현해야 한다.

9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<u>않은</u> 것은? [3점]

> 갑: 정의는 영혼의 각 부분인 이성, 기개, 욕구가 서로 참견하는 일이 없이 제 일을 하여 서로 조화를 이룬 것이다. 반면 부정의는 영혼의 각 부분 간의 일종의 내분이며, 영혼 전체에 대한 어떤 일부의 반란이다.
> 을: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동에 관계하고, 이 감정과 행동 속에 중용이 있다. 중용은 이성이 명령하는 것으로 과도함에 따른 악덕과 부족함에 따른 악덕 사이의 적절한 상태이며,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할 그런 방식으로 규정된 것이다.

① 갑: 정의는 지혜, 용기,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된다.
② 갑: 정의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.
③ 을: 품성적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.
④ 을: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적절한 상태는 모든 감정에 존재한다.
⑤ 갑, 을: 덕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.

10. (가)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 ~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갑: 앎[知]은 행함[行]의 시작이고, 행함은 앎의 완성이다.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앎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행함은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되고, 행함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앎은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된다. 을: 앎과 행함은 항상 서로 의지한다. 이는 마치 눈은 발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발은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. 앞뒤를 따지면 앎이 먼저이고, 중요도를 따지면 행함이 더 중요하다.
(나)	

〈 보 기 〉

ㄱ. A: 앎과 행함의 일치를 추구해야 하는가?
ㄴ. B: 앎과 행함에는 선후(先後)와 경중(輕重)이 존재하는가?
ㄷ. B: 그릇된 기질(氣質)을 바로잡기 위해 앎을 쌓아야 하는가?
ㄹ. C: 사물의 이치를 궁구(窮究)하여 앎을 극진히 해야 하는가?

① ㄱ, ㄴ ② ㄱ, ㄹ ③ ㄴ, ㄷ
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11. 그림은 현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가상 대화이다. 갑,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<u>않은</u> 것은? [3점]

① 갑: 인간은 신에 의해 본질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.
② 갑: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.
③ 을: 인간은 종교적 실존에 이르러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.
④ 을: 인간은 보편적 이성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.
⑤ 갑, 을: 인간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.

12.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. 학생 답안의 ㉠ ~ ㉤ 중 적절하지 <u>않은</u> 것은?

서술형 평가

◎ 문제: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.

갑: 쾌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. 참된 쾌락이란 마음껏 먹거나 흥청거리는 것이 아닌 신체의 고통과 마음의 동요에서 벗어나는 것이다.
을: 쾌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너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. 이성에 따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.

◎ 학생 답안

갑,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, 참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갑은 ㉠ <u>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고,</u> ㉡ <u>이성적 숙고를 통해 욕구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,</u> 반면 을은 ㉢ <u>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고,</u> ㉣ <u>욕구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성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,</u> 한편 갑, 을은 모두 ㉤ <u>개인의 평온한 삶을 위해 공적인 삶을 회피해야 한다고 보았다.</u>

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13.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지상의 나라는 사람들에게서 영광받기를 원하고, 천상의 나라는 신을 최상의 영광으로 여긴다. 신은 최고선이며,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고 선을 실현하며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. 신은 사람을 선한 의지를 가진 자로 창조하였다. 하지만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났다.

〈 보 기 〉

ㄱ. 선이 결여된 상태인 악은 신의 창조물이다.
ㄴ. 신은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다.
ㄷ.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 원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.
ㄹ. 신을 사랑하는 인간은 천상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.

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4.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모든 존재의 참모습은 생겨남[生]과 사라짐[滅]이라는 이분법적 분리가 없으며, 일체의 인위적 구별이 원천적으로 해체된 상태이니, 오직 일심(一心)이라 한다. 일심에는 참 그대로의 측면[眞如門]과 무명(無明)에 따른 분별을 조건으로 생멸하는 측면[生滅門]이 동시에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둘이 아닌 하나이다.

〈 보 기 〉

ㄱ. 일심을 깨달아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.
ㄴ. 일심으로 보면 진여(眞如)와 생멸(生滅)의 세계는 다르지 않다.
ㄷ. 일심은 무명을 추구하여 모든 대립과 갈등이 해소된 경지이다.
ㄹ. 일심으로 돌아가려면 각 종파의 특수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.

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5.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○○에게

지금 그대는 큰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쓸모가 없다고 걱정만 하고 있지, 어찌 그 나무를 아무것도 없는 곳의 드넓은 들판에 심어 놓고 그 나무 옆에서 일없이 느긋하고 자유롭게[逍遙], 그 나무 아래에 누워 잠잘 생각을 하지 않는가? 그렇게 한다면 도끼에 찍힐 염려도 없고 바깥 사물이 해코지하는 일도 없으니, 쓸모없다는 것이 어찌 괴로운 일이기만 하겠는가. …(후략)….

① 일체의 차별이 없는 절대 평등의 경지[齊物]에 도달해야 한다.
② 인의(仁義)를 실천하여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.
③ 도덕 규범을 세워 모든 외물(外物)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.
④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.
⑤ 만물의 근원인 도(道)를 구현하여 분별적 지혜를 얻어야 한다.

16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> 갑: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성의 지배만 받을 뿐이다. 이성은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들을 제안한다.
> 을: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.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재산을 확실하게 향유하면서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상태를 떠나서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에 합의한다.

〈 보 기 〉

ㄱ. 갑: 자연 상태에는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한다.
ㄴ. 을: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집행할 권리를 지닌다.
ㄷ. 을: 시민은 정당한 동의로 구성된 국가에 대해 저항권이 없다.
ㄹ. 갑, 을: 국가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만든 수단이다.

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7.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> 성장 그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. 목적은 더 이상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 아닌 현존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이다.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은 그들이 고정된 목적에 도달했는지, 도달하지 못했는지에 의해서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,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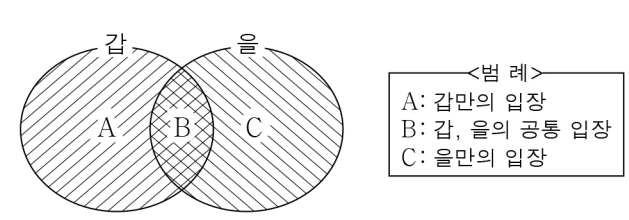
① 현실과 무관하게 진보하는 가치가 존재한다.
② 불변하는 고정된 도덕 법칙을 정립해야 한다.
③ 유용한 결과보다 본래적 선을 추구해야 한다.
④ 도덕의 목적은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.
⑤ 도덕적 지식은 문제 상황을 개선하는 수단이다.

18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> 갑: 이성만으로는 덕과 악덕을 발견할 수 없고, 덕과 악덕이 유발하는 인상이나 감정을 통해서만 그 차이를 확정할 수 있다.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진다는 말이 더 적절하다.
> 을: 진리 탐구를 위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내 믿음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를 보기로 했다. 그렇게 의심하는 동안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명제를 깨달았다.

① 갑: 이성은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직접적 동기로 작용한다.
② 갑: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이다.
③ 을: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는 철학의 제1원리를 인식할 수 없다.
④ 을: 확고부동한 진리 도출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귀납적 추론이다.
⑤ 갑, 을: 경험과 관찰을 통해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탐구해야 한다.

19. (가)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 ~ C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	갑: 명이 바르지[正名] 않으면 말에 순서가 없고, 말에 순서가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.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(禮樂)이 세워지지 않으며, 예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. 을: 성인(聖人)의 정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해 주고, 그 배를 채워 주며, 그 뜻을 약하게 해 주고, 그 뼈를 튼튼하게 해 주는 것이다. 이처럼 무위(無爲)를 행하기만 하면,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게 된다.
(나)	

① A: 통치자는 덕이 아닌 형벌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.
② A: 통치자는 백성들을 무욕(無欲)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.
③ B: 통치자는 백성들이 도(道)에 따른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.
④ B: 통치자는 의로움[義]보다는 이로움[利]을 중시해야 한다.
⑤ C: 통치자는 예(禮)를 통해 바람직한 다스림을 실현해야 한다.

20.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'√'를 표시한 학생은?

>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하루에 여섯 시간만 일하여도 필요한 모든 생필품은 물론, 삶을 윤택하게 하는 온갖 물건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, 도리어 그런 것을 충분히 생산해 내고도 시간이 남아돈다. 또한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많아서, 사람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요청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. 그리고 모든 것이 공평하게 분배되므로, 빈곤층이 존재하지 않는다.

입장 \ 학생	갑	을	병	정	무
이상 사회의 구성원은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.	√	√		√	
이상 사회에서는 모든 재화가 풍족하며 고르게 분배된다.	√		√		√
이상 사회에서는 여가 생활을 금지하여 낭비를 막는다.			√	√	√
재화의 사적 소유를 허용해야 높은 도덕성이 유지된다.		√		√	√

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

※ 확인 사항

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